

하쿠산 계잔부쓰(뽕플룻)

하쿠산 신사의 하쿠산 계잔부쓰와 중

이시카와현 유형문화재로 지정

이 13 개의 불상과 중은 1874 년 일본 역사상 흥미롭게도 한창 격동의 시대일 때 파괴를 면했습니다.

불상과 중은 원래 하쿠산의 높은 곳에 있는 가가 겐조도를 따라 세워져 있던 몇 개의 작은 절에 안치되어 있었습니다. 근대화가 개막된 메이지시대(1868-1912 년), 정부는 신도의 국교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불교와 신도를 강제적으로 나누는 신불분리라는 새로운 정책을 내세웠습니다. 불교와 신도는 몇 세기에 걸쳐 평화롭게 공존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불교는 상황이 완전히 바뀌어 배척의 대상이 되었으며, 많은 불교 사원이 없어지거나 파괴되었습니다. 게다가 수많은 불교의 보물도 파괴되었습니다.

이 정책에 따라 수만에 달하는 불교 사원과 보물이 소실되었습니다. 하지만 신앙심이 두터운 사람들이 불상과 같은 법기를 보관하고, 정부 당국에서 숨긴 사례도 많이 발견되었습니다. ‘계잔’이란 산에서 내려간다는 의미로, 현재 오조 하쿠산 신사에서 볼 수 있는 불상은 하쿠산에서 아래로 옮겨 이곳에 숨겼습니다.

1. 목조 아미타여래 입상(1216 년) 당시 활약한 불사(불상을 만드는 장인) 가이케 또는 다른 유명한 불사의 작품으로 여겨지는 이 견고한 목상은 가마쿠라시대(1185-1333 년) 초기의 정통과 불교 미술의 대표작입니다.

2. 동조 관음보살 좌상 및 동조 대좌. 불상은 가마쿠라시대(1185-1333 년) 작품. 현재 모습은 연꽃 위에 앉아 있는 관음상입니다만, 이 불상의 정수리 부분은 원래 십일면 관음상에 있던 것이라고 여겨집니다. 연꽃 양식은 이 대좌(불상을 올려놓는 대)가 불상보다 이후 에도시대(1603-1868 년) 중반에 주조되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.

3. 목조 지장보살 입상 5 개 무로마치시대(1336-1573 년) 후기 작품.

4. 목조 지장보살 입상 헤이안시대(794-1185 년) 후기 작품.

5. 동조 지장보살 입상(1700 년)

6. 목조 십일면 관음 좌상(1636 년)

7. 동제 금강 동자상 가마쿠라시대(1185-1333 년) 후기 작품. 이 작품의 대담하고 혼치 않은 기법에서 제작 시기를 알 수 있습니다. 일본 중세 하쿠산 신앙의 중요한 사료입니다.

8. 동제 부동명왕 입상(1702 년)

9. 경종